



독신과 성(性)

이성웅 세례자요한 신부 | 대구대교구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성(性)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신은 혼인과 더불어 성(性)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식, 즉 성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독신은 성(性)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신과 성(性)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 언급하신 성경 구절은 마태오 복음 19장 12절입니다.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혼인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혼인과 동등한 삶의 다른 형태로 독신의 삶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性)을 단순히 육체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전 존재, 즉 인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신의 삶은 성(性)을 살아가는 고유한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혼인이 육체적인 생식과 출산으로 열매를 맺으며 몸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독신은 하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풍요롭게 열매를 맺으면서 몸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독신 성소의 길을 걸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하느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걸어가셨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혼인의 목적을 부부사랑과 자녀출산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그로 인해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들은 혼인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독신과 정결을 살아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성(性)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성과 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욕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성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성소가 다른 성소보다 낮거나 모자란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신 성소는 성(性)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신의 삶은 미래의 부활과 하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헌장 인류의 빛 44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자 신분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 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독신 성소는 우리가 미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이루게 될 완전한 친교를 지금 여기서 미리 앞당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1코린 15,28)이 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또한 이 삶은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지는” (마태 22,30) 종말론적인 신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카리스마적인 은총입니다.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의 성(性)을 충만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